

생산·소비·투자 ‘널뛰기’... 소매판매 급증에도 회복 ‘글썸’

통계청, ‘2월 산업활동동향’

2월 전산업생산 2개월 만에 반등
소매판매 11개월래 최대폭 증가
설비투자 22년 만에 가장 큰 폭
정부 “기저효과, 회복 판단 일러”

지난 2월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했다. 특히, 소비가 11개월 사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내수부진 극복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도 흘러 나온다. 하지만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이 3개 분야는 1월에 동반 감소한 바 있고, 그에 따른 기저효과가 2월 들어 나타났다. 이같이 부침을 거듭하는 탓에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기엔 무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5년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 산업 생산은 전월대비로 0.6% 늘었다. 소매판매(소비)는 +1.5%, 설비투자는 +18.7%를 기록했다.

광공업생산은 1차금속(-4.6%) 등에



인천국제공항 제2 터미널 내 면세구역의 모습. /뉴시스

서 생산이 줄었지만 전자부품(9.1%)과 전기장비(6.0%)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1.0% 증가했다. 제조업 재고는 1.2% 감소했고, 제조업 출하는 내수(1.5%)와 수출(0.8%)에서 모두 증가하며 1.3% 늘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정보통신(-3.

9%) 등에서 생산이 줄었지만 도소매(6.5%), 금융·보험(2.3%)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과 비교해 0.5% 늘었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1개월 만에 다시 증가로 전환했다.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1.5% 늘면서 지난해 3월

(+1.5%)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었다.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3.2%)에서 판매가 크게 늘었다. 특히 내구재 판매 증가 폭은 2009년 9월(14.0%) 이후 15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5%),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1.7%)에서는 판매가 줄었다.

업체별로는 전문소매점(5.7%),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6.3%), 무점포소매(1.8%), 면세점(8.9%)에서 증가했다. 그러나 슈퍼마켓 및 잡화점(-5.1%), 대형마트(-7.6%), 백화점(-4.9%), 편의점(-2.2%)에서는 판매가 감소했다.

투자도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에서 모두 늘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23.3%) 및 운송장비(7.4%)에서 투자가 모두 늘어 전월보다 18.7% 증가했다. 이는 2003년 2월(19.4%) 이후 22년 사이 최대 증가 폭이다.

건설업체의 시공실적을 금액으로 집계한 통계인 ‘건설기성’은 건축(-2.

2%)에서 실적이 줄었던 반면, 토목(+13.1%)에서 늘면서 전월대비 1.5% 증가했다. 다만 투자의 선행지표 성격인 국내기계수주(-7.4%)와 건설수주(-6.9%)는 후퇴했다.

앞서 지난 1월 생산은 전월(12월)대비로 -2.7%, 소매판매는 -0.6%, 투자는 -14.2%를 기록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트리플 증가가 자주 나오는 게 아닌데 최근 트리플 증감이 계속 반복되는 형태”라며 “월별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트리플 감소는 안 좋다, 트리플 증가가 좋다’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긴 호흡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복 조짐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트리플 증가를 했다고 해서 회복에 굉장히 긍정적 신호가 나타났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 “4월이 되면 미국의 관세 부가가 어떤 형태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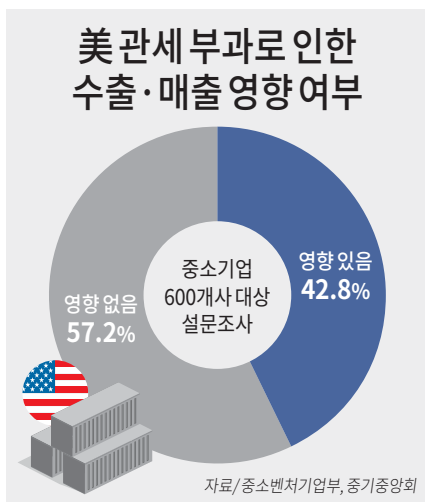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수출중소 10곳 중 4곳, 美 철강 등 관세에 ‘영향’

중기부·중기중앙회, 600개사 조사
피해 영향 42.8%, 67.5% ‘대응 못 해’
수출 예상 피해액 평균 182만 달러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로 수출·매출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피해액은 평균 182만 달러 수준으로 예상했다. 특히 10곳 중 7곳 가까이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관세 대응에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관세 관련 정보 제공’ 등을 꼽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



한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미국 관세 부과로 수출·매출에 영향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42.8%가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57.2%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매출 규모별로 200억원 미만 기업에서 영향이 있다는 비중이 43.4%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충청권에서 영향이 있다는 비중이 50%로 타 지역보다 높았다.

‘영향이 있다’고 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 피해 예상 규모는 평균 181만5000달러로 파악됐다.

예상 수출 피해 규모는 ‘10만~50만 달러 미만’이 33.5%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50만~150만 달러 미만’ (23.5%), ‘10만 달러 미만’ (17%) 순이었다.

예상하는 매출 피해 규모는 ▲5억~

15억원 미만(27.2%) ▲5억원 미만(26.6%) ▲15억~50억원 미만(23.4%) ▲100억원 이상(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답기업의 67.5%는 관세 부과 대응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32.5%의 기업(복수응답)은 ‘생산비용 등 자체 비용 절감 노력’이 52.8%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미국 거래처와 관세 부담 논의’ (51.8%), ‘유관기관 설명회 참여 등 정보탐색’ (30.8%) 등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가장 필요한 관세 지원 정책(복수응답)으로는 ‘관세 관련 정보 제공’

(51.3%)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물류비용 지원 강화’ (46.7%), ‘정책자금 지원’ (40.5%) 등을 주로 원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선 철강·알루미늄 관련 파생상품 수출 기업 중 43.4%가 ‘수출이 어렵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파생상품 수출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부 지원책(복수응답) 으로는 ▲미국 HS코드 확인을 위한 전문 컨설팅 (42.4%) ▲철강·알루미늄 함량 계산 컨설팅(41.4%) ▲통관 절차 등에서의 서류 대행(33.5%)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전문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전국 15개 지역별 애로신고 센터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이 당면한 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중견기업, 2분기도 ‘경기 나빠진다’... 내수 전망 ‘최악’

중견기업, 2분기 경기전망 결과 80.7 기록, 1년전비 11.6p 하락
수출보다 내수 침체 더 걱정
“정부, 국회 등 지혜 모아야”

중견기업들이 1분기보다 2분기 경기가 더 나빠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수출보다 내수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31일 내놓은 ‘2025년 2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경기전망 지수는 80.7을 기록했다. 1분기와 비교하면 0.4포인트(p) 상승했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11.6p 하락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중견기업 8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전망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전분기보다 다음 분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기업이 더 많고, 100 미만이면 반대라는 뜻이다.

업종별로는 기타 제조업이 유일하게 ‘100’을 기록해 기준선에 걸쳤다. 나머지 분야는 모두 ‘100’을 밑도는 등 2분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제조업 가운데 1차금속·금속가공업종(61.7→66.3)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식·음료품(83.5→64.1), 자동차·트레일러(84.7→76.8) 등이 전분기 대비 하락세가 크게 나타나는 등 전 업종의 전망이 어두웠다.

비제조업 중에서는 운수업종(89.2→78.0)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부동산(70.9→63.7), 출판·통신·정보서비스(83.1→78.8) 업종도 뒤를 이었다.

중견기업들은 올 2분기 수출은 소폭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내수는 더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식·음료업종의 전망은 밝았다.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출 전망 지수는 97.2을 기록하는 등 전분기 대

비 3.1p 상승했다. 다만, 여전히 100을 넘지 않는 등 부정적인 전망권을 벗어 나지 못했다.

제조업 수출은 전 분기 대비 7.9p 오른 99.6으로 집계됐다. 특히 식·음료품업종이 전 분기 대비 28.8p 오른 124.2로 나타나는 등 수출이 좋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늘었다. 1차금속(99.5→22.7p) 업종도 상승폭이 컸다.

이런 가운데 중견기업들은 경영 애로 1순위로 ▲내수부진(59.1%) ▲인건비 상승(40.9%) ▲업체간 과당 경쟁(35.5%) ▲원자재 가격 상승(30.4%) ▲환율 변동(27.0%) 등을 꼽았다.

이호준 중견기업 상근부회장은 “급격한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수출과 내수 전방의 활력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고질적인 경영 애로를 해소하는 데 정부와 국회 등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가상자산 위축... 비트코인 8만달러 ‘턱걸이’

관세 전쟁·인플레이 ‘이중고’

가상자산 시장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 확산에 위험자산 선호가 위축됐고, 인플레이션 우려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도 늦어지고 있어서다. 지난달 11만 달러를 목전에 뒀던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은 8만달러 전후까지 내려앉았다.

31일 가상자산 시장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 따르면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1시 20분께 1BTC당 약 8만1400달러(1억195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24시간 전보다 1.96% 하락한 수준이다. 지난 1월 22일 기록했던 연중 최고가인 10만6136달러 대비로는 약 23% 하락했다.

주요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의 하락폭은 더 컸다. 가상자산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ETH)은 연중 최고 대비 약 51.1% 하락했고, 시총 3위인 리플(XRP)도 36.4% 하락했다. 대표적인 밈 코인인 ‘도지코인(DOGE)’과 ‘오피셜트럼프(TRUMP)’의 낙폭은 각각 59.6%, 86%에 달했다.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을 지속하는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이 격화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들어 멕시코·캐나다·중국에서 수입되는 대다수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어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알루미늄, 철강 제품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내달 3일부터는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의약품·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도 논의 중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